

基調講演

朱子學과 近世思想

中國 何 佑 森 (中國台灣大教授)

近世朱子學은 大概 四期로 劃分할 수 있다. 즉 16世紀 羅整庵, 陳清瀾一生卒이 退溪보다 조금 일찍이나—등이 第一期에 속한다. 다음 17世紀·顧涇陽·高景逸·劉蕺山·顧亭林一生卒이 退溪보담 다소 늦어나—등 諸學者가 第二期에 속한다. 그리고 18世紀, 錢竹汀·王懷祖·段茂堂—清代的 乾隆·嘉慶·兩期 사람들로서—등, 이들이 第三期에 속한다. 끝으로 19世紀 魏默深·陳蘭甫는 清代 道光에서 光緒年間에 이르는 학자로서 第四期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區分에 對해서 一部에서는 異議를 갖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近代朱子學을 論한다면 어찌서 張楊國·陳稼書·陸桴亭·王白田 등 학자를 들지않느냐 하는데 있다. 陽明學을 研究한 劉蕺山, 또 經史學을 研究한 顧亭林과 錢竹汀, 그리고 訓詁學家인 王懷祖와 段茂堂, 今文經學家인 魏默深等の 여러學者를 朱子儒學으로 손꼽는데, 이것은 무슨 緣故에서인가? 本人이 오늘 討論하고자하는 主題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近世思想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다음과 같은 一聯의 觀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明代에 있어서는 다만 陽明學만 擡擧 講究할뿐 朱子學은 別關心을 끌지 않았고 清代에서는 오직 考據學만 講究했을뿐 義理之學을 云謂學論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前者는 黃梨洲의 明儒學案에서 깊은 影響을 받았고, 後者는 江鄭堂의 漢學師承記에서 影響받은 바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影響을 받았다는 問題는 따로 討論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事實에 있어서 明代의 儒學은 바로 朱子學과 陽明學이 相互混合되어 서로가 條理가 맞지않는 儒學이었다. 萬曆以後, 陽明學에 있어서 突變的인 偏差가 發生하던바, 애당초 陽明學을 研究하던 學者가 돌연히 朱子儒學으로 變貌하였던 일이 있었다. 陽明學의 大師인 劉蕺山이 바로 그중 한사람이었다. 이와 같

이 王陽明에서 朱子로 되돌아온 것이 明代末 哲學思想의 自然的인 一 種의 趨向이었는데 黃梨洲는 이 趨向을 全的으로 無視하고 王陽明의 良知에서 劉蕺山의 慎獨之學을 創發하고자 一心努力하였다. 黃氏가 所編한 學案도 스스로의 固執에 依據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의 好惡스런 性格에 起因한 것으로 봐선 왕왕 明代朱子學者를 收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朱子學者의 學術宗旨와 一生의 精神的인 透露를 避免하였던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예로 16世紀 第一期의 朱子學者 가운데 羅整庵을 諸儒學案에 收錄해 놓고도 결국, 羅氏가 별로 著名한 학자가 못 된다고 말하였으며, 羅氏以後 陳清瀾이 쓴 「學部通辨」에서도 陽明學說에 對한 객觀적인 批評이라 하여 後에 清初 陳稼書學說이야말로 考亭 千城이라 하고도 結局 學案에 收錄해 넣지 않았으며, 그의 來歷도 記載하지 않았다 한다. 이것이 가장 分明한 두가지 보기다. 17世紀 第二期學者에 와서는 陽明學을 研究하던지 아니면 朱子學을 연구하던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함께 追求한 目標은 바로 傳統儒學과 論爭한 것이다. 理由는 이 時期에 와서 禪學이 監行하였고, 佛門弟子가 陽明의 四無學說을 빌려서 儒學을 攻駁하였기 때문에 陽明後學들이 憂心 冲冲하여 부득이 朱子儒學으로 되돌아와 朱子學說을 重視하면서 禪學을 排擊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傳統儒學에 論爭하는 態度는 바로 道統과 論議하는 것과 같은 狀況이어서 모두가 禪學은 道統에 容納될 수 없음을 是認하고 있다. 道統에는 그 學問된 方向이 두가지로 分有된다. 하나는 顧涇陽을 血脈으로 하는 學問의 方向과 다른 하나는 高峴逸을 脈絡으로 하는 學問의 方向이 그것이다. 이들은 朱子是 孔子와 上接한 一脈으로서 人倫事物과 實知實踐에 偏重되어 있음을 달고 있다.

한국의 李退溪의 學問된 方向이 바로 이와 같다. 陽明은 孟子와 上接한 一脈을 形成하고 뿐만아니라 靈明한 知覺과 默識默成에 偏重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學問된 方向의 問題는 陽明學이 良知를 妙悟하여 사람의 本心을 直證할 수 있는데 있다. 上智人은 타고날래부터 良知를 잘 妙悟할 수 있어서 能히 그 本心을 直證할 수 있으나, 그러나 中材 以下の 사람은 왕왕 所從來를 몰라 虛와 蕩에 빠지기 쉽다한다. 本來 사람이 虛하면 그 容貌가 蕪業하지 않음이 없고, 또 蕩하면 그自憚

朱子學과 近世思想

心이 他事에 陷弱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陽明學이 17世紀에 와서 漸漸開展하여 形成된 流弊이다. 劉戡山은 敎人하는 方法에 讀書를 삼았고 顧亭林은 敎人方法에 博文과 知恥를 倡導하였다. 그 後, 漸漸開展하여 經史之學이 形成되었는데 그 目的은 바로 사람의 本心에서 虛와 蕩의 流弊를 挽救하는데 있다. 當時 佛氏學者 亦是 陽明의 良知說을 研究하여 各들 스스로가 陽明後學을 統合하고 서로의 印證을 尋求한 끝에 泰州學派의 陶石簣는 佛門弟子들을 引進하였으며, 劉戡山은 陶石梁과 함께 證人講會의 石梁門人과 禪學佛을 參拜하였던 일이 있다. 이와같이 이들은 佛學의 因果에 陷弱되었거니와 여기에서 儒學 陽明의 本質이 한결같이 變하게 되었다. 事實上 陽明良知說을 傳承한 一脈의 사람들은 儒學道統의 地位를 動搖시켜 놓았고 劉戡山도 亦是 證人講會에서 儒學으로 하여금 到處에 朱子學 一脈이 되기를 強力히 主張하였으며 아울러 明初의 方正學과 薛敬軒의 朱子學을 宣揚하여 朱子學을 根據로 陽明學을 修正하였었다. 그가 죽자 애석하게도 그의 學術思想이 分裂되어 門下弟子가 두 派로 갈리게 되었다. 하나는 浙西의 早期弟子인 惲日初등이 그의 朱子學을 繼承하였고, 다른 하나는 浙東의 晩年弟子인 黃梨洲등이 오히려 劉戡山의 陽明學을 詳解하였다. 戡山遺書를 編輯하고 그 學術의 宗旨문제를 해결하기 爲하여 이 두弟子는 20餘年이나 論爭을 試圖하였다. 明儒學案이 바로 此時에 成書되었으나 戡山의 朱子學이 黃梨洲에게 注目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 自然的인 일이었다. 다행히도 顧亭林이 宋代의 黃東發과 王厚齊의 朱子學을 能히 留意할 수 있었고 결국 朱子一脈의 儒學으로 하여금 論爭을 試圖하면 할수록 한결 明確한 趨勢에 놓이게 되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考據學者는 반드시 朱子學을 排斥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은 다르다. 즉, 18世紀, 段茂堂과 王懷祖는 비록 그 一生을 文字와 訓詁學에 研究을 하였으나 그들은 결코 朱子가 進退의인 小學에 對應하여 洒掃할 것을 修正해 보자는데 對해 否定하지 않았다. 19世紀에 와서 魏默深이 비록 今文經學을 研究하고 그 一生동안 가장 推尊한 학문은 오히려 顧亭林과 陸桴亭의 朱子學이었으나 그러나 朱子學이 博大하고 精深함은 四百餘年을 前後로해서 披歷되어 各時代의 動

亂과 思想의 發展이 그 偏差를 보이고 있지만, 唯一하게도 能히 그 偏破的인 것을 補充할 수 있었고, 그 流弊를 救濟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孔子·朱子 一脈을 傳承하는 儒學뿐이었다.

前面에서 말한 16世紀 以後의 孔子·朱子의 儒學的 發展을 지금 계속해서 近世思想의 內涵을 指摘하고자 한다.

近世學者는 孔子·朱子의 儒學을 理論의 基礎위에서 補充的인 發展을 附加하여 氣質을 形成하였다. 時代로 봐서 끊임없이 變化하고 있으나, 그러나 傳統思想인 理·氣 또는 道器의 基本관념을 여전히 近世學者가 다함께 討論해야할 重要한 課題이다. 要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신으로 하여금 모두 能히 이 道理——天의 아래에는 수많은 道理가 共在해 있다는것——를 잘 알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天아래에 있는 수 많은 道理에 一貫相通하여 內外가 一脈相通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실은 天下의 道理란 全體일 따름이지 部分으로 쪼개여 질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分裂되어 버리면 곧 道理로 看做할 수 없게된다. 이것이 近世學者가 公認하고 있는 一個의 前提이다. 세상에는 다만 部分의 道理를 강구하는 사람이나 部分의 道理를 追求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道理란 마치 空中에 매어달려 있지 않음이 없어서 器나 氣위에 附在하여 있고, 理와 道는 形而上인 反面에 形而下的 것이 된다. 近世學者가 人倫의 日用에 偏重하여 있음은 形而上的인 道理가 形而下的인 人倫의 日常生活가운데 共在해 있음을 是認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왜 무수한 道理에 貫通할 수 없으며, 또 어째서 大道全體에 도달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은 一己私心의인 존재에서서 人倫日常을 輕視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人倫日常을 重視하고 自己忠實과 스스로의 良心에 依해 다른 사람과 行動할 때 忠恕로서 먼저 自私自利를 去捨한다면, 결국 自然히 萬殊의 道理에 能通할 수 있고, 大道全體에 得到할 수 있게 된다. 만일 人倫日常밖에서 大道를 追求한다면 끝내 體와 用이 곧 두 갈래로 截然되어 求得된 것은 다만 虛無한 道理밖에 없다. 近世學者는 學問의 精과 粗, 그리고 本과 末이 一驛의 先後關係가 있어서 먼저 先精後粗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先末本末해서도 아니된다고 思料하고 있는듯 하다. 近世學者는 항상 孔子·朱子의 學術

朱子學과 近世思想

을 갖이고 人倫日常의 內涵을 說明하고 있다. 孔子에 依하면 「恭遜히 居處하고 恭敬히 일을 處理하며, 對人관계는 참된 마음으로 하니 이것이 修己·待人·處事하는 根本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마치 「粗」를 賤視하는 것 같으나 理가 그 가운데 共在하여 있다. 朱子에 依하면, 「孝弟忠信과 持守誦習은 下學의 根本이다」라 하였으니 이는 마치 粗를 賤視하는 것 같이 思料되나 道가 그 가운데 共在하고 있다. 만일 精粗本末의 先後次序關係를 顛倒하면 粗處에 따라 着眼할 必要도 없고 本處에 따라 着力할 必要도 없으니 장차 스스로가 罅中에 懸在하여 있어서 罅中에서 「一貫」과 道體를 追求하니 이는 마치 精이 微妙한 것 같이 보이나 결국 一切가 한결같이 無所見하는데 不過하다.

儒學의 道理가 講論된지 이미 二千年이 넘었다. 近世學者가 講究하고 있는 두가지 道理는 그 着眼點이 비록 人倫日常에 偏重되어 있어 항상 孔子·朱子儒學의 대두리를 넘어설수가 없다. 今後 많은 學者들이 그 道理를 講論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研究가 爲人에 偏在해 있던지 아니면 讀書에 置重해 있던지를 막론하고 本人亦是 孔子·朱子儒學의 대두리를 떠날수 없음을 믿어마지 않는다. (言)《原文中國語》